

장흥군 “우드랜드 숲속에서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해요”



올해 첫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작 5~7세 학습 능력·감수성 증진에 의미 뒤 예산 추가확보 유아숲지도사 4명으로 확대

장흥군은 지난 22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올해 첫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은 5세~7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일반적인 실내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교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숲에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두 프로그램 다 유아의 학습 능력과 감수성 증진에 의미를 두고 있다.

장흥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1,20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총 1,257회 교육을 운영했다. 올해 국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유아숲지도사를 4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관내·외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 시설에 참여 의사를 조사했으며, 32개 교육 시설에서 454회 참여 접수를 받아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 소독과 출입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며 “아이들의 감수성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유아숲체험원(☎ 061-864-3265) 또는 장흥군 산림휴양과 우드랜드관리팀(☎ 061-860-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현장 맞춤형 딸기 육묘 교육

최신 모주 냉동저장 기술·삼목 육묘 등 다양한 방법 소개

강진군은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딸기 재배농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딸기 고품질 우량묘 생산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딸기 육묘 매뉴얼을 교재로 최영준 원예연구팀장이 강사로 나서 병 없는 딸기묘 생산 방법과 모주 냉동저장 기술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딸기 재배는 병 없는 우량묘 준비가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조직 내부

로 감염되는 치명적인 병이 있는 딸기묘를 심으면 겨울내내 수확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또한, 어리고 작은 묘를 심게 되면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군은 지난 3년간 10억 원을 투입하여 딸기 육묘 전문단지 육성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40농가, 4.5ha에서 매년 약 300만 개의 묘를 생산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어미묘에서 병 감염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높은 점에 착안해

딸기 어미묘 월동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냉동 저장고를 활용하는 기술을 보급해 안정적인 딸기 재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가는 “딸기 육묘 준비가 막막했는데 육묘 매뉴얼을 보고 따라 하여 반드시 올해 농사가 성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장을 찾은 이승욱 강진군수는 “딸기는 우리군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요 작물인 만큼 농업인들과 공직자가 함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제정

4차 산업에 발맞춰 행정분야 드론 활용방안 마련



완도군은 무인 비행장치(이하 ‘드론’)를 이용한 공간 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도군 무인 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19일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근거로 드론 운영 및 관리, 촬영, 공간 정보의 관리·보안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다. 군에서는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스마트 드론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에 적용하고, 유관 기관과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드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진도군, 제3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

최우수기관 선정 상사범비 1억 확보

진도군이 재난·재해에 대한 전라남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범비 1억원을 받았다. 군은 최근 열린 제3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은 전남도가 도민들의 안전 실천 의지를 높이고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 안전 중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과 단



체, 시군 등 부문별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군민주도의 안전문화운동, 민·관 체계적인 협력체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전마을 CCTV 설치, LED 가로등과 경

관조명 설치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등 분야별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진도군민, 민간·사회단체와 공무원이 협력해 얻은 값진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진도군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안전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웹셀러 나도 해볼까? 해남군, 청년창업 도전하세요

청년 10명 대상 2년간 최대 3천만원 지원

해남군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비대면 시대, 웹셀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10명을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역

량강화사업과 함께 창업 준비 사무실 제공 및 1,000만원 내외(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창업분야는 관내 농수특산물, 농수특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판매와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일자리

지원센터)일자리 찾기>해남군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수행기관인 해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로 직접 방문(☎061-537-7756) 또는 이메일(hnsane@daum.net)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망 청년창업자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